

'태권도원 성지화' 박차

무주군, 국정과제 발표 이후 동력 얻어... '10대 문화콘텐츠' 토대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가 국정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안에 포함되면서 무주군이 반짝하고 나섰다.

무주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태권도 활성화와 태권도원 성지화 등 현실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군은 국가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개발·보급될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를 토대로 태권도원 성지화 사업에 매진한다는 계획으로, △무주가 태권도의 도시로 확실히 각인되고 △무주태권도원이 태권도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성지로 또 △연수와 훈련, 경기를 위한 전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 시설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들의 무주이전과 태권시티 네트워킹형 클러스터 조성, 무주-살천간 국도건설 등의 사업들의 추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관련 부처에도 건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살천면 반디랜드~태권도원 구간을 태권도 상징거리(태권도 품새 조형물 등 설치)로 조성했으며 태권도문화특구 지정 사업(2017~2018)을 비롯해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2017~2019)과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2017~2019)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사업(2016~2019)비가 100%(17억 원)



무주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공연

확보되면서 교류의 장인 태권전과 고단자들의 수련공간인 명인관을 조성하게 돼 민자 유치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태권도원 진입로 4차로 확장사업(2018~2022)도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추진을 앞두고 있으며, 태권시티 네트워킹형 클러스터 조성사업 역시 현실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력해 문체부의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황 군수는 "태권도 활성화에 국가가 나선 것은 우리 군이 태권도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가 태권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태권도원 성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태권도원 성지화와 세계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또 계획 중인 사업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에 태권도원을 알리고, 208개국 8,000만 태권도인들을 무주태권도원으로 불러 모으는 것은 무주발전을 넘어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데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세종청사' 서 휴가 관광객 유치활동

도·시·군 공동...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집중 홍보

장수군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휴가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휴가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북도청과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홍보행사에서 출근 및 종식시간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홍보 자료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장수군은 세종시민들에게 '세종청사'의 숨겨진 매력과 방화동가족휴가촌 등 주요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사과, 오미자 등 특산물을 알리는데 힘썼다. /장수=고관호 기자

특히 9월 22일~24일 3일 동안 열리는 제11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집중 홍보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수군 관광지 홍보와 함께 '2017 전북방문의 해' 합동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의 지역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인접 시·군과의 연계 관광홍보를 통해 전북 토탈관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명품수박 본격 출하

최상의 품질과 당도를 자랑하는 '진안고원 수박'이 내일부터 본격 출하된다.

진안고원 수박은 청정지역 고랭지의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아시아사과와 11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로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올해 진안 미야산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출하될 진안고원 수박은 재배면적 86ha, 177농가가 참여, 3,800여 톤의 물량에 60여명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위해 업무협약

무주 농기센터-무주농협

무주군 농업기술센터가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와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을 위한 협력관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정보 공유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농업경영체 조직화와 교육, 신기술보급 권

설당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발굴과 친환경농업 육성, △6차 산업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에 앞장서자는데 뜻을 모았으며 △농산물 유통 및 유품품목 발굴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역량과 농협 조직을 활용한 상호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24일~11월말까지

진안군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선다.

군은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업사로 구성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오는 24일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관내 거주자로 최근 5년 이내 총기 또는 수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모범적이고 경력이 많은 수렵인 30명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간대가 야간까지 연장되므로 야간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총소리에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보고회 개최

장수군은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한영희 부군수와 관계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기본방향과 주요변경 내용 및 세부프로그램 7개분야 64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순으로 보고회를 가졌다.

한우랑 사과랑축제는 지난해 201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대상에 선정, 명실공히 전국 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또한 지역 어메니티 자원인 Red Color 농특산물(한우,사과,오미자,토마토 등)을 테마로 활용한 체험형 축제로, 지난해에 34만 명 방문과 행사장 판매액 36억 원의 성과를 올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일정은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장수군 익양공원 및 장수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최용득 장수군수 도로변 풀베기 작업 격려

장수군 최용득 군수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7월말까지 대대적인 도로변 풀베기 작업 등 장수군 일대 도로주변 환경정비에 나서고 있는 도로관리원들의 작업 현장을 지난 21일 방문해 격려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장수군 도로관리원들은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 총 309.5km 전 구간에 풀베기 작업을 진행, 이를 통해 도로변 잡초와 가로수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 등을 제거해 도로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물론 안전사 시야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국제화교육센터 교육현황·발전방안 간담회

무주국제화교육센터는 지난 20일 센터 강당에서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이해양 부의장, 이한승 의원, 이해연 의원 및 무주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국제화센터 교육현황과 효율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7년 교육 성과분석 ▲이용자 요구사항 ▲영어특기생 육성 등 센터의 현황 및 지역 청소년 교육 육성 방안이 토의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 수사개혁 간담회 개최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정진만은 지난 21일 경찰서 수사과에서 현장 수사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경찰개혁을 위한 수사개혁 방안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사관 독립에 앞서 인권보호가 최우선시 돼야 함을 공감하며 이를 위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인권보호는 모든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최 일선에서 담당하는 현장수사관들의 기본적목임을 한번 더 강조하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앞으로 수사 활동에 있어서 변호인선임과 참여를 확대 시행하는 등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 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
-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 국가대표 코치 역임
- 일본 신타포 국제대회 참가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1/NSL2)취득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겨 취득
-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